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빠르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산지원봉사

월간 / 제115호

2007년 6월 1일

http://vt.busan.go.kr

자원봉사 상담 및 문의는 국번없이 1365

발행인 : 류기형 편집인 : 김용명 발행처 :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등록번호 : 부산라 01145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273-20 상수도사업본부 10층 전화 : (051)864-1365 팩스 : (051)888-6907 편집·인쇄 : 국제신문

홈페이지 방문자 1천만명, 가입회원 15만명 돌파

2004년 3월 1일, 홈페이지 재개설 후 사이버상 방문자 하루 평균 1만여명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vt.busan.go.kr) 방문자 1천만명!

그 고지 점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중순이후 홈페이지 방문자가 960만 명을 뛰어넘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6월 말이면 1천만명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센터에서는 홈페이지 방문자 1천만명 돌파 및 회원가입자 15만명 돌파를 기념하기 위하여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새내기 추카추카, 십오만 "대박", 축하 댓글 퍼레이드 등 3가지 이벤트가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추천 또는 심사,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2004년 3월 1일 홈페이지 재개설을 기점으로 한 통계수치로서 하루 평균 1만여명이 우리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으며, 최고 2만여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을 비롯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고조 및 참여증가, 민·관·기업의 각종 인센티브 증가, 자원봉사 접수제 등 내외적 요인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vt.busan.go.kr 홈페이지

방문자 1천만명, 가입자 15만명 돌파 기념 이벤트

- 행사기간 : 2007년 6월 15일(금)~7월 13일(금) (29일간)
- 참여대상 : 1. 홈페이지 가입 회원 2. 모든 행사에 중복 참여 가능
- 행사내용 : 3종류 이벤트

이벤트명	세부내용	응모방법
새내기 추카추카	행사기간 내 가입한 신규회원 추천 행사	회원가입과 동시에 이벤트 대상에 선정됨
십오만 "대박"	<아차상> 149,999번째, 150,001번째 가입자 <대박상> 150,000번째 가입자	
축하댓글 퍼레이드	"축하댓글달기" 참가자 추천행사	자유게시판에 이름, 아이디와 함께 축하댓글 달기

○ 당첨자 발표 : 2007년 7월 23일(월) (vt.busan.go.kr '공지사항' 참조)

국제행사 자원봉사자 모집 지원

부산국제기계대전 등 3개 행사 103명

요즘 부산에서는 국제행사가 끊이지 않는다. 이 같은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보이지 않는 일등공신이 바로 자원봉사자다.

지난 5월부터 오는 6월까지 부산국제철도 및 물류산업전을 비롯하여 부산국제기계대전, 부산국제청소년(U-20)국가대표 축구대회 등이 부산에서 개최된다. 부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러한 국제행사를 위해 지난 5월 한달간 자원

봉사자 103명을 모집, 지원했다.

이들은 김해공항이나 벅스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등 부산의 첫관문이나 행사장 등에서 통역(영·일·중), 안내 또는 경기진행도움미로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2회 부산국제레이더영화제, 아름다운가게 봉사자, 부산장애인총연합회의 중증장애인 목욕봉사자 모집을 위한 홍보지원이 함께 이루어졌다.

사이버 리포터 활동 시작



지난달 12일 부산시자원봉사센터 강의실에서 '자원봉사 사이버 리포터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공모를 통해 최종 선발된 6명의 정예요원들로서 사이버상에서 타단체 홈페이지에 우리 센터 사업을 홍보하고, 자원봉사 기사 취재 및 홈페이지 모니터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리포터들은 올연말까지 활동하게 되며 인증서 수여 및 우수 리포터 시상,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교육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구·군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과정' 교육이 지난달 30일 실시되었다.

부산시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된 이날 교육은 자원봉사 지도자의 자질향상

과 지속적 활동을 지원하고 센터 활성화를 통한 자원봉사 문화정착을 위해 이루어졌다.

'자원봉사자의 자아성장'과 '참봉사와 아름다운 삶'에 대한 특강은 김영호 대구대학교수와 용혜원 유머자신감연구원이 각각 맡았다.

부산아시아드볼런티어 행사 연이어

부산아시아드볼런티어 가 연이은 행사로 활력을 더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상수도사업본부 대강당에서 2007년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구성된 운영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함께 논의했다.

26일엔 500여명의 회원들이 부유물과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있는 낙동강 하구에코센터 주변에서 대대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오는 6월에는 볼런티어 전체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원봉사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동 정

- 지난달 2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된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개토론회에 김용명사무국장이 참석했다.
- 2007대구박람회가 개최된 지난달 18일 부산지역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9명이 참가했다.
- 지난달 부산시가정봉사원 및 APEC기념재단 자원봉사자 180명을 대상으로 총 2회의 출장교육을 실시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워크숍 참가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기회

지난달 9일부터 1박 2일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된 행정자치부 주최 2007년도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워크숍에 부산지역 자원봉사센터 실무자 및 관계 공무원 35명이 참가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중요 이슈로 등장한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

가기본계획 연구보고서(안)를 비롯하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자원봉사종합관리 시스템 운영과 지역별 사례발표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전국의 자원봉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가 되었다.

자원봉사자보험 가입 사업자 선정

지난달 3일 부산지역 17개 자원봉사센터의 올해 자원봉사자보험(공제) 가입 사업자로 1,533원을 투자한 LIG손해보험(주)가 선정되었다.

사업자는 17개 센터가 공동추진키로 합의,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일반경쟁입찰 최저가낙찰제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사망·후유장애 5천만원, 상해의료비 3백만원, 상해입원비 1일 3만원, 배상책임 5백만원이 보장된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공모

부산지역 17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할 교육 및 D/B 코디네이터 각 1명을 공모했다. 접수자중 1차 서류심사

와 2차 면접을 거친 최종합격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자원봉사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가족 건강성 관점에서의 가족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상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경은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단순히 문제가 나타날 때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건강한 가족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가족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Stinnett과 DeFrain(1985)도 '건강한 가족이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듯이 사회복지계는 여러 사회문제의 예방차원에서 가족생활을 증진시키고, 모든 가족원의 성장, 자존감 등을 고무하는 방향으로 가족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중요한 자원인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서도 가족자원봉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자원봉사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정태적 집단 비교설계방법에 의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사이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개월 이상의 가족자원봉사 경험은 가족건강성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통제집단의 경우 가족이 정기적으로 함께 하는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가족보다 가족건강성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자원봉사를 통한 부모자녀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부모 자녀의 의사소통의 개방성과 명료성을 높이고, 가족원간의 정서적 친밀감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이웃에 관심과 필요한 도움을 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공동체 규범을 잘 전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족을 보다 건강하게 만든다면, 최근에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 문제의 중요한 예방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는 가족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가족과 관련된 치료자들은 임상에서 가족자원봉사를 치료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결과 가족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일반자원봉사와 차별화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었다. 가족자원봉사자들은 개별 자원봉사자들보다 가족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제약으로 더욱 적절한 장소, 시간, 업무를 찾기가 어렵다. 특히 초기 가족자원봉사 활동을 계획할 때는 재미있고, 흥미 있는 쉬운 활동, 경험과 재능과 힘의 범주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새로운 경험과 환경을 가족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활동, 가족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활동, 스케줄과 활동처가 융통성 있는 활동, 어린 아동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는 활동, 다른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있는 활동,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활동 등으로 계획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족 자원봉사활동도 대부분 자원봉사 활동의 초기 특성인

사회복지 분야에 치중되고 있었다. 가족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와 소비자분야, 환경분야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가족자원봉사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시민단체를 통하여 가족자원봉사를 경험한



경우가 종교단체보다 높았다. 그리고 세부 영역별로 비교하여본 결과 결속력,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영역에서 시민단체가 기타 단체 및 기관에 비해 효과성 정도가 높았다. 이것은 시민단체의 경우 주요주제를 정하고(대부분 환경보호를 위한 단체임) 그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평가까지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형태의 가족자원봉사를 실시하여 다른 단체보다 가족의 건강성 정도가 높았으므로 가족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시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가족자원봉사의 지속여부에 관해 조사한 결과 계속하겠다는 결과가 86.0%가 나타

나 가족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의 저변인구 확대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결과(Cassell, 1994)를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가족자원봉사가 모집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가족 전체 구성원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고 지속성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장덕희·이경은, 2001)와도 일치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가족자원봉사는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달리 대상자 모집방법이 비공식적 통로에 의한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처음부터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한 주부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대상자 선정에 융통성이 있을 때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동기가 부족한 잠재적인 자원봉사자는 기존에 참여한 가족들의 변화를

여섯째, 가족자원봉사자가 가족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한 결과를 보면 우선 가족자원봉사활동 실시에 따른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활동 시간 제약을 들고 있다. 왜냐하면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 계획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 주말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참가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이것이 가족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가족자원봉사는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학교, 직장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 체계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가정 뿐 아니라 학교,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므로 연계가 될 수 있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하나의 사례로 자원봉사 활동 기관(주로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가족자원봉사자를 위한 시설 및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원봉사 가족들이 조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봉사자실이나 가족 중보살핌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돌보아줄 수 있는 시설이나 보호자가 지원되어야 한다. 특히 가족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육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장소와 업무를 배치한다든지 혹은 자원봉사센터 내에 탁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참여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 것이 비용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가족자원봉사 경험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을 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이웃의 고통에 대한 연대감을 정립하는데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가족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의 저변확대, 가족 문제의 예방,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하여 활성화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의 주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계는 가족자원봉사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후속연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5월 7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주최 '가족자원봉사 슈퍼마져 교육'에서 발표된 '가족건강성 관점에서의 가족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중 '논의 및 결론'부분을 발췌, 게재합니다.

통하여 자원봉사자로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장일로 가족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아버지의 경우, 봉사활동을 통해 가족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한 아버지의 경우는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이고 중도탈락률도 낮다고 한다(장덕희·이경은, 2001). 그러므로 기존의 자원봉사자를 가족자원봉사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가족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념규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칼럼

자원봉사는 삶의 일부

선진국일수록 자원봉사의 일상생활화 이뤄져



임동규

부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
부산YMCA 사무총장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로 시작해 본다.

미국 하버드대학을 지원한 재미동포 2세가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1차 합격되었다. 그러나 2차 면접 결과 불합격되었다.

그 이유는 이 학생은 공부 외에는 해본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스포츠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며 예능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나이가 현혈도 전혀 해본 적이 없었다. 정말 공부만 잘 하는 학생이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

정치인들은 대부분이 국민소득을 외치면서 선진 한국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무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이다. 국민소득이 몇 만불 된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평등과 자원봉사 그리고 국민 소득이다.

남녀관계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하며 장애인 비장애인의 차별도 없는 평등사회가 선진국이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이다.

선진국들을 보면 자원봉사가 생

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래전 미국의 소도시를 방문하여 미술관을 찾아 갔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은퇴 후 자원봉사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최근에 병원을 가면 우리도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친절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일들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문제는 자원봉사의 생활화라 하겠다. 자원봉사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되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 사회는 살맛나는 곳이 될 것이다.

부산시자원봉사센터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또 여기에 있어야 한다. 사업 중심이 아니라 단체들과 네트워킹을 통하여 자원봉사의 지경을 넓혀 가며 시민들로 하여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어야 하겠다.

궁금해요

한일해저터널 그 가능성은? 한, 일, 중 전문가 참석 세미나 개최



한일간 오랜 검토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일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논의가 부산에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달 14일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은 한일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본격 논의하기 위해 '한일해저터널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 일, 중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일해

저터널에 대한 타당성과 두 나라발전과 외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 토론했다. 이날 참석한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해저터널 건설로 부산의 잠재성장률이 33% 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터널공사로 국토균형발전 및 대외경제 측면에서 기회가 될 것이라 진단했다.

반면 남기찬 해양대교수는 "부산 등 지역경제에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이후 단순히 터널의 경유지뿐만 아니라 인 식될 경우, 항만물류 감소 등 손해가 더 많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일해저터널은 일본 큐슈(九州)에서 쓰시마(對馬島)를 거쳐 부산 또는 거제까지 해저터널로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터널의 길이는 210~230km로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유로터널(50.54km)보다 4배이상 길며 공사비는 70조원이상, 공사기간은 10년~20년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비용분담 문제에 대해 일본측은 일본2 대 한국1로 분담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측 찬성론자들은 전체 건설기간 중 양측의 거리에 따라 분담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경우 한국측 거리는 25km에 불과해 전체 비용의 1/8~1/9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권민혁명예기자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안)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지난달 2일 서울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작년 12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최일섭·정진경 교수의

발제에 대해 자원봉사센터, 복지부, 여성부, 봉사단체, 대학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회 전체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제안된 의견은 심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수정, 확정될 예정이다.

자봉만평

김명진



세계 청소년 월드컵 자원봉사자 모집마감



2007 FIFA 세계 청소년 월드컵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 모집이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이루어

졌다. 이번에 접수된 자원봉사 희망자들 중 서류심사와 면접, 교육·훈련을 거쳐 오는 7월 1,839명의 봉사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9일 서울 결승전까지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조직위 본부와 개최지에서 경기 운영, 등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말기암 전문의료기관 자원봉사자 확보해야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에는 적정수준의 자원봉사자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달 6일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 20명당 3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환자 15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를 1명 이상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World News *기사제공: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VISO 이희준

▶▶ 자원봉사자를 위한 라디오방송

라이베리아의 수도인 몬로비아에서는 지난 2월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자원봉사자를 위한 생방송 "Volunteer Voices(자원봉사자의 목소리)"를 정규편성, 방송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라이베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경험, 자유보장을 위한 활동, 참여 동기 등과 그들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현재 290여명의 UN소속 및 타단체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분야와 장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를 위한 방송을 결정한 주요 관계자는 이 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자원봉사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며, 자원봉사활동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생 동안 헌신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 동티모르 대통령선거 선거지원



1차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자원봉사자들은 선거절차 및 관련 교육을 강화했다. UN 소속 자원봉사자들은 기술적인 문제, 수송 관련분야, 선거정책 결정문제 참여 등의 활동에 주력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한 동티모르 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한 기술사

무국(STAE), 선거위원회(CNE), 국회, 상소 법원 등에서 열정을 쏟았다. 1차 선거후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선거예행연습에 대한 평가였다. 13개 선거구 관계자들이 준비해온 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장단점과 보완점을 토의한 후, 최종 2차선거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부족한 미디어시설을 대체하고 선거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교사들이 선거참여 및 정보를 학생들에게 설명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다시 설명을 해주는 방법을 채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강서구자원봉사센터

강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조성혜)는 지난달 5일 공연, 게임, 이벤트 등으로 진행된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주최 어린이날 가족잔치에 120여명의 봉사자들이 행사진행을 도왔으며, 19일 낙동중 전교생 600여명이 유해 포스터 제거 및 쓰레기 줍기 등 대대적인 내 고장 가꾸기 활동을 전개했다.

② 금정구자원봉사센터

금정구자원봉사센터(소장 박종필)에서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남광주간보호소, 정신보건센터, 장명경로식당 등에 봉사자들이 정성껏 만든 쌀로 만든 사랑의 떡을 나누었으며, 지난달 11일 열린 알뜰장터에서 자연사랑팀이 소외이웃 돕기 기금마련을 위해 직접 만든 재생비누를 판매했다.

③ 기장군자원봉사센터

기장군자원봉사센터(소장 지복순)에서는 지난달 8일 나눔회가 어버이날 행사 참여를 위한 기장노인복지회관 어르신 외출보조를 했으며, 토요일마다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하늘채사랑이 5월에는 종덕원과 부설 용소마을 앞에서 사무실 수리와 농작물 재배를 위한 각종 설비작업을 펼쳤다.

④ 남구자원봉사센터

남구자원봉사센터(소장 황영식)에서는 지난달 3일 한글교실 어르신들과 문해교육봉사단 봉사자 등 45명이 대구 동화사로 불나들이를 다녀왔으며, 매주 한번씩 각반이 교대로 내 고장 가꾸기 활동을 하고 있는 대연교가 11월 1학년 30여명이 학교 주변과 평화공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⑤ 동구자원봉사센터

동구자원봉사센터(소장 배영호)에서는 흥사단 및 동의중 교사·학생의 홀로어르신 무료도배에 이어 지난달 5일 대학생봉사단 오륙도레오가 어린이 날 행사가 펼쳐진 민주공원에서 풍선과 이음표를 달아주었으며, 빙그레노인대학과 어르신 생신상 차려 드리기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⑥ 동래구자원봉사센터

동래구자원봉사센터(소장 구철수)에서는 지난달 4일 어린이날 행사 이벤트봉사에 이어 서울기술통신봉사단의 홀로어르신 케네이션 및 선물전달, 동래한전지점봉사단의 무료급식소봉사, 어린이나눔교실의 감사꽃바구니 만들기, 지역아동센터견기운동 및 또래멘토링프로그램 진행을 도왔다.

⑦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소장 유영란)에서는 지역사회 발전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부산여대와의 산학협력체결식에 이어 SK텔레콤부산기업금융지점봉사단이 셋째주 토요일마다 결연을 맺은 선암초등 방과후교실의 프로그램 및 간식비를 지원하고, 놀토축구교실 도우미활동을 하고 있다.

⑧ 북구자원봉사센터

북구자원봉사센터(소장 정인선)에서는 지난달 9일 금곡고MRA의 화명대천천 환경정화에 이어 부산정보대사회봉사단의 한·중 나라사랑 독도사랑 캠페인 참여, KT북부산지사의 북이마을협력체만들기사업 합류 협약식, 현대·기아자동차 가족봉사단의 정화노인요양원 방문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자봉자봉!

동구자원봉사센터

오륙도레오

어린이 날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진 민주공원 입구. 한무리의 대학생들이 어린이들에게 이음표를 만들어 달아주느라 분주했다. 며칠동안 공을 들여 만들어진 1천여개의 이음표. 올해는 기계로 찍는 이음표까지 합세하여 더욱 다양해졌다. 매년 민주공원 어린이 날 이음표는 이들의 특허품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동구자원봉사센터 '오륙도레오'.

1980년 오륙도라이온스와 35A지구 라이온스의 지원을 받아 '레오클럽'이 세상에 태어났다. 레오는 부산의 9개 대학 동아리 연합체로서 28기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졸업자들로 구성된 명예회원, 재학생들로 구성된 학생명예회원과 정회원 및 준회원 등 45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이중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50여명의 정예멤버들이 활동의 중심축이다.

동구자원봉사센터와는 8여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어린이 날 이음표 달아주기도 동구센터를 통해 시작되었다. 식목일을 전후한 어려운 세대를 위한 무료



어린이 날 민주공원에서 이음표를 달아주느라 분주한 모습들

도배봉사,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에서 숙식을 하며 1주일간 펼치는 여름방학 농촌 봉사활동과 마을잔치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활동과 모임은 회원들이 학생의 신분이라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대부분 이루어진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는 사하평화노인요양원에서, 다섯째주 토요일에는 애광노인치매전문요양원에서 목욕봉사, 청

소, 말벗, 레크리에이션 보조 등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라이온스와 연계한 건기대회, 마약퇴치운동 등의 행사진행도 우미로도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 중에 사회복지학과 출신들이 많아 복지관 봉사활동도 수시로 하고 있다. 노인요양원이나 장애인리이집을 비롯한 각종 시설에서 개별적으로 꾸준히 봉사하고 있는 회원들도 있다. 봉사의 깊은 매력

에 빠져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중독자(?)들도 몇몇 있다.

매년 MIT(1박2일), LEO(Leadership-2박3일/Experience-1박2일/Opportunity-3박4일)트레이닝 등 형태가 조금씩 다른 훈련을 연4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 이 때는 졸업한 선배들의 따뜻한 후원도 빠지지 않아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성장한 사자 '라이온스'와 대비해 야기 사자가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밀림의 왕자 '레오'에서 따온 강한 사자의 기상을 봉사단 이름에 담았다. 거기에도 농활 등 힘든 봉사를 마다 않는 것은 "힘든 봉사가 더 보람 있고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이라는 봉사사랑이 있다. 덧붙여 레오의 최고 장점을 "한마디로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이은주부회장의 말처럼 남다른 인화력과 협동심이 있다.

이처럼 강함과 따뜻함을 고루 갖춘 오륙도레오는 아동이나 장애우분야 쪽으로도 봉사의 폭을 넓혀나가고자 꿈을 키워가고 있다.

chaekg@empal.com 김채경팀장



9 사상구자원봉사센터

사상구자원봉사센터(소장:홍봉선)에서는 지난달 4일 어린이날 맞이 별난놀이터 개최에 이어 10일 양문교회·밀알선교단·사상경찰서·한울봉사단·사상구자원가사봉사의원의 장애인(70명) 목욕봉사, 19일 아동·청소년들의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희망멘토링 '1+1행복세상' 발대식이 있었다.

10 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하구자원봉사센터(소장:정규명)에서는 지난달 5일과 12일 을숙도어린이한마당 및 을숙도사생대회에 부경대생 등 봉사자들이 진행을 도왔으며, 사하 자원봉사의 날인 19일 부경보건고·아름다운사하가꾸기·사하구공무원봉사단이 3개 시설에서 이·미용, 말벗, 목욕, 환경정비활동을 했다.

11 서구자원봉사센터

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정운주)에서는 지난달 5일 하안비둘기사랑모임이 송도 마리아영아원에 어린이날 선물 나누기 행사에 참여했으며, 18일 부산여중 한국스카우트가 안나노인건강센터를 방문하여 대금연주와 노래, 율동 등 어버이날 맞이 공연봉사와 1일 소녀 더어드리기 활동을 하였다.

12 수영구자원봉사센터

수영구자원봉사센터(소장:김양자)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추위를 통해 반찬봉사수혜처 생선전달, 이삭의집 가족 저녁초대 및 선물, 실버문화교실·성분도어버이집 식사제공 및 팔·구순잔치와 위로공연, 홀로어르신·장애인덕에 성금과 빵을 전달했으며, 5일 '어린이나눔장터' 진행봉사를 했다.

13 연제구자원봉사센터

연제구자원봉사센터(소장:하만호)에서는 지난달 7일 돌하나봉사단의 해맞이경로당 어르신 점심대접에 이어 8일 연제경찰서녹색어머니회가 불우이웃돕기 일일찾집 수익금중 일부를 성우원에 전달했으며, 12일과 15일 좋은사람들이 밥퍼나눔운동 참여 및 초음병원 어르신 위문공연을 펼쳤다.

14 영도구자원봉사센터

영도구자원봉사센터(소장:김귀자)에서는 지난달 1일 영도구여성자원봉사회는 동삼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영도구 초등학교내 특수학급(장애아동) 어울미당의 진행보조 및 미니운동회에 함께 참여했으며, 12일 2007 한부모가정과 함께 하는 햇빛나눔 행사를 태종대 체육관에서 처음 가졌다.

15 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자원봉사센터(소장:최상수)에서는 지난달 19일 주5일근무제의 여가를 이용하여 국민은행부평동지점봉사회가 장애인, 홀로어르신, 중·고생 등 40여명이 거주하는 미인가사회복지시설인 성모마을을 방문해 환경정화 및 빨래 등 평소 입소자들이 하기 힘든 노력봉사와 말벗봉사를 하였다.

16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소장:박효일)에서는 지난달 8일 100여명의 해성노인대학 어르신들을 모신 생신잔치 및 어버이날 행사에 이어 10일 300여명의 무료급식소 어르신 대상 사랑의 선물나눔, 17일과 23일 해운대한일문화교류봉사단과 외국부인대상 한글교실팀의 현장학습이 각각 이루어졌다.



소식마당

지금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협의회는?



푸르름을 더하는 봄날, 부산은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요즘 자원봉사는 시민의 의무이자 여가문화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활동전반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자원봉사는 양적·질적 팽창의 급격한 변혁기를 맞고 있다.

이에 발맞춰 1999년 1월 구성된 부산시자원봉사센터협의회는 부산지역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의 중심기구로서, 17개 부산시, 구·군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교환 및 매달 정기적인 소장·실무자회의를 통한 사업논의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공동사업 추진으로 부산에 자원봉사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 이후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자원봉사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크다. 따라서 협의회는 자원봉사자 등록배가를 위한 fun-fun 자원봉사 한마당, 청소년 자원봉사 어울마당, 자원봉사 홍보캠페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 중이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자원봉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변화의 씨앗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칭찬마당

문정숙 연제구자원봉사센터



2004년부터 봉사를 시작한 돌하나봉사단의 부단장 문정숙(61)님. '자원봉사는 나의 비타민'이라는 열정적인 봉사자. 맹인복지관에서의 매주 화요일 무료급식도우미와 월1회 목욕봉사, 용두산공원에서 월2회 어르신무료급식봉사, 애광원·초읍가족사랑요양병원·정화요양원·부곡온천병원 등 각종 시설에서의 목욕과 청소봉사... 봉사활동처도 다양하다.

황년자 영도구자원봉사센터



75년 폐품을 팔아 어르신관광을 시켜드리며 시작된 가사봉사단 황년자(64)님의 봉사역사. 홀로어르신택에 새벽연탄을 갈아주려다 남편과 이웃에게 받은 오해, 이제 봉사동지가 된 두손자, 3년동안 자식처럼 기른 실직해체가정 자녀들, 부황·수지침·호스피스·발마사지·사회복지사과정 등 꾸준한 자기개발, 급식봉사, 반찬나누기... 봉사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아름다운 사람 - 송영일

재난, 내가 예방한다. 오바~



“디에스제로브이피(DS0VP), 오바” 인터뷰 장소였던 부산시청 26층 장비실에서 송영일(46)씨는 무선접속 중이었다. 알아듣기 힘든 무선용어들이 오갔다. 디에스제로브이피(DS0VP)는 아마추어무선의 부산시청 아이디(ID)라고 한다. 아마추어무선이란 개인의 취미에 따라 사설무선국에서 행해지는 단파에 의한 무선통신을 말한다.

송씨는 한국119방재지원단 부산지부장이다. 2001년 서울본부의 승인을 받아 직접 부산지부를 설립했다. ‘장’이 되기 전에도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청소년지도활동, 자율방범 등의 활동을 해왔던 그였다. 처음으로 맡은 ‘장’이 생각처럼 호락하지는 않았다고 넌지시 웃음을 보였다.

한국119방재지원단 부산지부의 주목적은 ‘재난방지’. 재난발생시 긴급통신 지원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다. 홍수, 산사태, 태풍, 장마, 폭설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찰, 예방하는 것도 임무이다. 그 외에 지역방범순찰이나 청소년지도활동 등 비영리단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6여년간 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태풍 매미가 한국을 지나쳤던 2003년. “도로에서 순찰을 하던 중, 갑자기 차량에 거대한 무엇인가가 떨어져 차가 부서져 버렸어요. 사람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었죠.”라며 그 당시의 위급함을 회상했다.

어렵고 위험한 봉사활동이지만 봉사를 시작한 뒤로 세상을 조금씩 다르게 보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었다는 송영일씨. 예전에는 날씨에 무신경했지만, 지금은 비나 눈이 조금만 내려도 걱정이 앞서서 상황실로 달려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그는 최근 재난예방과 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재난예방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동네 곳곳에 물이 잘 빠지지 않는 하수구만 미리 체크를 해도 장마나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고의 재난 해결책입니다”라고 말했다.

“봉사는 말이 아니고 행동”이라는 그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했다. 마지막으로 회원 모두 건강을 유지해가면서 정력적으로 활동을 하자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배수림명예기자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자원봉사 친구들과 다시 참여하고 싶어

군대를 전역하고 동의대 “청옥”이라는 동아리에 회장을 맡고 후배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다.

처음 간 곳은 가온누리봉사단에서 소개시켜준 벅스코에서 행사하는 제2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행사내용 중 동래부사축제이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기존의 아동·청소년분야 자원봉사활동보다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벅스코에 갔다. 축제기간 동안 벅스코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처음 맡은 것은 동래부사가 행차하는 행사 중 이방역 할이었다. 난생처음 옛날 옷가지들을 입고 수염도 붙이고하니 마냥 신기했다. 축제박람회에는 처음 참가하는 것이어서 어리둥절하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면서 계속 웃는 것 같아 쑥스러웠다.

벅스코 행사장 안을 “동래부사 행차하신다. 길을 비켜라!”라고 크게 외치면서 한번 돌았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차를 할 때에는 쑥스럽고 어색하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았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사진도 찍고, 모두 신기하다는 듯이 보니까 내가 진짜 조

선시대 이방이라도 된 듯 행동을 하게 되고, 저절로 책이나 텔레비전에서 본 이방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다녔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웃어주고 하니 저절로 흥이 나고, 봉사활동을 왜 하는 것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이튿날은 사람이 부족하여 맨 앞줄에서서 내가 나팔을 불게 되었다. 나팔을 부는 것 또한 흥겹고 재미있었다. 처음에는

나팔 부는 요령을 몰라서 부는 시늉만 하고 다니다가 요령을 깨닫고 난 뒤에는 구경 온 어른들, 아이들에게 직접 나팔 부는 것도 가르쳐주었다. 그러다보



니 구경 오신 어른들, 아이들과 내가 하나된 느낌이 들었다. 전에는 학점 때문에 가기 싫은 봉사활동을 가고 그랬지만, 이번엔 축제박람회에 참가하여 동래부사 행차 체험을 하고부터는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적극 참여하고 싶고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더욱 더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다른 친구들과도 함께 이렇게 즐거운 체험들을 해보고 싶다. 내년에도 한다면 꼭 참가해야겠다.

이유빈 동의대1

동북아통신

의료 투어, 현장방문 등 바빠지는 연해주

올해는 고려인농업정착지원사업을 시작한지 5년째로서 6개 마을 농업센터들이 정착화 단계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연해주 현장을 방문하여 고려인들을 응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방문인원만 2천여 명으로 추정될 정도다.

이처럼 따뜻한 만남을 위해 뒤에서 준비하는 인력 또한 많이 요구된다. 연해주 현장에서 7월부터 8월까지 두달간 활동하면서 축제기획부터 여행지 가이드, 고려인 마을 조사까지 맥가이버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을 할 대학생 자원활동가를 지난 5월 14일부터 26일까지 모집했다. 신청자중 최종 20여명이 선발되어 방송팀, 동북아평화학교, 센터지킴이 및 농활팀운영, 우수리스크사무국, 페스티벌 기획팀 등의 스태프로서 활동하게 된다. 우리나라와는 생활수준이나 환경이 달



연해주 농촌봉사활동

라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자원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 또한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평화연대 의료지원위원회에서는 동북아평화의료단 조직을 현실화 시켜나가기 위해 지난달 말 블라디보스톡 의과대학과 연해주모자보건센터와 함께 무료진료활동 및 상호 의료협력을 위한 의향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정기적인 의료봉사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고려인 대상 의료봉사

한걸음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의료협력과 봉사에 의사 등 우리나라 전문 의료진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6월 7일부터 13일까지 한-중-러 의료현장 투어를 실시하게 된다. 7일부터 10일까지는 연길지역의 상시진료소와 연계하여 위생국, 연변제2병원, 연변부유보건원, 국가급 빈곤현으로 조선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왕청현의 왕청현립병원 등을 견학하고 간담회를 갖는 투어

일정이 잡혀 있다. 10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중국팀과 합류하여 블라디보스톡과 우수리스크에 있는 국영병원을 시작으로 연해주보건국 및 우수리스크 의사단과의 미팅, 보건국과의 만찬, 블라디보스톡의 병원을 견학하며 의료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이 투어에는 조선족 마을과 배초구진, 신한촌, 고려인 농촌마을, 이상설 유희비 및 발해성터 등 우리나라 역사유적지, 러시아한인이주140주년기념관을 둘러보는 일정이 잡혀 있어 우리 고려인들의 현실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

송상운명예기자

[필자는 우리센터 ‘우리들의이야기’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세계청년봉사단(KOPION) 10기 해외과건봉사단원으로 선발돼 2005년 2월부터 연해주 고려인을 돕고 있다. 현재는 동북아평화연대(www.wekorean.or.kr)에서 간사로 봉사하고 있다]

알림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정기교육

- 일시 : 6/1(금) 14시~16시
- 장소 : 부산시청 전산교육장(6층)
- 대상 : 시 및 자치구·군자원봉사센터 업무 담당자
- 내용 : 관리자모드 운용 및 부가서비스 활용

자원봉사 활동사례 모집

- 기한 : 제한 없음
- 내용 : 사회 모든 분야의 자원봉사활동 사례
- 분량 : A45~6장,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
- 형식 : 활동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양식, 활동사진 또는 도표 첨부
- 게재 : 부산시자원봉사센터 간행물(월간) "부산자원봉사"
- 접수 : 메일로만 가능 [chaekg@empal.com]
- ※ 보내주신 사례는 자원봉사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자원봉사 출장교육 서비스 지원 희망단체 신청·접수중

- 목적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움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참여 유도
- 대상 : 자원봉사 교육을 희망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 내용 : ①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 강사 지원(20명 이상 출장교육 지원)
② 교육 내용 및 시간 등 세부내용은 희망 기관(단체)의 요청에 따라 조정 가능

자원봉사 평생관리시스템 가입단체 모집

- 대상 :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 혜택 : 자원봉사활동실적 평생관리 및 확인서 발급
- ※ 부산시내 단체 및 기관, 시설 소속 자원봉사자 활동실적을 평생 누계 관리해 드립니다. 상담 후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전화 (051) 864-1365 / 팩스 (051) 888-6907
이메일 bc1365@cho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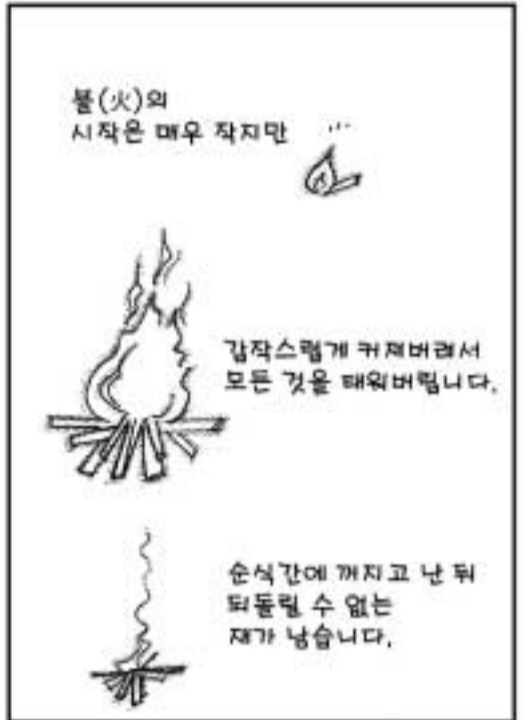
- 나눔가게 판매봉사자 모집
 - 일시 : 월~금(시간조정 가능)
 - 목적 : 기증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으로 소외계층 돕기
 - 문의 : 동구자원봉사센터 ☎ 441-7755
- 빙그레노인대학 참가자 모집
 - 일시 : 매주 목, 10시30분
 - 내용 : 한글·영어·한문교실
 - 문의 : 동구자원봉사센터 ☎ 441-0139
- 희망바자회 봉사자 모집
 - 일시 : 6/22(금)~6/23(토)
 - 장소 : 롯데백화점 동래점 야외광장
 - 목적 : 저소득가정 청소년 급식비·학비 마련
 - 내용 : 물품판매, 먹거리장터, 이벤트, 문화공연, 차량 봉사 등
 - 문의 : 동래구자원봉사센터 ☎ 526-1430
- 해피룩 요리봉사자 모집
 - 일시 : 2주 토요일 13시~17시
 - 장소 : 양정 김정미요리학원, 진구내 홀로어르신택
 - 내용 : 홀로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요리를 만들어 배달
 - 문의 :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 863-2494
- 사하 자원봉사의 날
 - 일시 : 6/16(토)
 - 장소 : 다대포해수욕장 일대
 - 내용 :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환경정화
 - 문의 : 사하구자원봉사센터 ☎ 292-2550
- 지역주민을 위한 자원봉사
 - 분야 : 이·미용(2주 화, 10시~14시) / 수지침(금, 11시~13시) / 노래교실(월, 10시~11시30분) / 요가교실(화, 10시~11시) / 스포츠댄스교실(화, 14시~15시) / 노인상담(월~금, 10시~17시)

- 대상 : 60세 이상 어르신
- ※ 이·미용 - 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포함
- 문의 : 수영구자원봉사센터 ☎ 752-8766
- 민원안내 봉사자 모집
 - 일시 : 주1회, 10시~12시
 - 내용 : 동부지원내 민원안내
 - 문의 : 수영구자원봉사센터 ☎ 752-8766
- '땀과 열매로 맺는 사랑나눔' 참가자 모집
 - 일시 : 매주 토, 9시~15시
 - 장소 : 기장군 용소마을
 - 내용 : 텃밭 및 채소가꾸기, 김장담그기 등
 - 문의 : 연제구자원봉사센터 ☎ 862-0592
- 공원 속 작은 음악회
 - 일시 : 6/23(토)
 - 장소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장림동)
 - 내용 : 도심 유희지 공원화 및 문화공원 체험
 - 문의 :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 802-3188
- 2007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대회
 - 주제 : 경계를 넘어 창조적 협력으로-파트너십, 거버넌스, 선진화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업, 일반기업, 시민단체·개인
 - 분야 : 협력사례-사회(단체), 정부(중앙행정·지방자치), 기업(공공·민간), 제안(개인), 홍보 등
 - 접수 : 6/15(금)까지
 - 문의 : 2007민관협력우수사례공모대회 조직위원회 ☎ (02)396-2252 [www.newgovernance.net]

봉사 모집

- ♣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864-1365)
 - 전문봉사단 : 외국어, 의료, 문화예술분야 등
 - 장애인 나들이 봉사(월1회) : 소금꽃봉사단
 - 재난복구봉사(수시)
- ♣ 금정구자원봉사센터(☎ 512-2461)
 - 이·미용봉사(월1~2회)
- ♣ 서구자원봉사센터(☎ 256-5870)
 - 홀로어르신 생활도우미
 - 풍물, 노래 및 문화활동 지도자

- 노인요양병원 도우미
- ♣ 수영구자원봉사센터(☎ 752-8766)
 - 노인병원 여가 프로그램 진행(월1회)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차량봉사(주1회)
 - 지역아동센터 초등생 대상 학습지도(수시)
- ♣ 연제구자원봉사센터(☎ 862-0529)
 - 홀로어르신택 사랑의 빵배달(주1회)
 - 녹산힐집 홀로어르신 무료점심제공 도우미
 - 지역아동센터 주방보조, 학습지도봉사(주1회)
- ♣ 학장종합사회복지관(☎ 311-4017)
 - 거동불편 어르신가정 방문 가사서비스
 - 어르신가정 밀반찬 조리 및 배달
 - 어르신택 방문 컷 및 퍼머 등



Book

2007년도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워크숍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의 직무능력 강화 및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 향상 및 상호정보교류를 위해 지난 달 행정자치부 주최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국가기본계획 연구보고서(안) 등 현안 및 사례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 펴낸곳 : 행정자치부
- 분량 : 223쪽
- 내용 : 분임토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연구보고서(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설명자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과제, 지역별 사례 등

소개합니다 단체회원

현인기념사업회 연예봉사단



현인 노래비 제막식에서

군세어라 금순아, 신라의 달밤 등으로 널리 알려진 가수 현인. 부산 영도 출신인 그를 기념하여 2003년 '현인 노래비'가 세워졌다. 현인가요제 개최지인 송도해수욕장에는 '현인광장'을 조성, 오는 8월 5일 준공 예정

이라고 한다.

부산의 이 같은 현인기념사업과 더불어 봉사현장에서도 그의 이름이 빛을 발하고 있다. 82명의 무명가수 중심의 '현인기념사업회 연예봉사단(회장 장영규)'이 그 주역. 노래, 민요, 풍물, 탈춤, 음향 등 다양한 재능꾼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다. 입소문을 통해 KBS1TV 행복한 토요일에도 출연했다.

부산의 애광노인요양원, 호산노인건강센터, 성요셉의 집, 황전노인요양원과 양산종합사회복지관, 삼랑진 덕인요양원, 진영 한서병원 등 부산, 경남지역을 넘나들며 회원들이 월2회 이상 노래교실 강사로 봉사하고 있다. 경로잔치에도 빠질 수 없는 단골이다. 지난달 8일엔 울주군 서생면까지 달려갔다.

너무나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봉사하는 연예인의 이미지도 심어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보다 폭 넓은 복지시설과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를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 장회장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어 그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 Best 봉사자 |

김덕애 (진) 원봉공회부산지회

은혜김치 나눔, 홀로어르신 반찬배달, 오륜정보학교 간식 및 레크리에이션 보조, 원광단지보호소 치매노인 목욕봉사, 장학기금 마련 은혜마트 물품판매, 사무보조 등 총13회 95시간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수영 · 이상철 · 장세동 (선) 민중의술연합자원봉사단

동래구 수안동에 위치한 민중의술연합 상설치유봉사센터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총23회 69시간의 민중의술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강 유 (미) 민중의술연합자원봉사단

동래구 수안동에 위치한 민중의술연합 상설치유봉사센터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총22회 66시간의 민중의술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상에서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가장 많은 봉사자입니다. 통보된 봉사활동 실적 등록 기준일은 5월 23일입니다.

2. 봉사단 활동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

시설 유지지 공원과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부산환경공단의 장림동 강변사업소에서 지난달 26일 가정의 달 맞이 '공원 속 전통놀이 체험과 가족운동회'를 개최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부산시회 ▶

부설 부산소비자센터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오는 5일까지 올바른 용돈 사용 습관 형성을 위해 부흥초등학교 등 시내 초등학교 순회 '꿈나무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우름봉사단 ▶

지난달 8일 부산시중식분과위원회와 연계해 암남동 '소년의 집'에서 960명의 원생과 250명의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자장면, 야쿠르트 무료급식활동을 펼쳤다.



오륙도일본어봉사회 ▶

지난달 26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회원들은 수준급의 일본어통번역봉사 외에도 넷째주 토요일마다 광안리해수욕장 가꾸기 활동을 하고 있다.



원봉공회 ▶

지난달 3일 부산시청 등대광장에서 개최된 원봉공회부산지회 설립 30주년 기념 '은혜의 김치 나누기'를 통해 1,500kg의 김치를 시설과 어려운 이웃 300세대에 전달했다.



◀ 재난복구봉사단 · 사랑의열매

지난달 10일 한·중합작 나라사랑·독도사랑·조오대사랑 캠페인 참여에 이어 20일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제9회 부산시장기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진행도우미로 활동했다.



◀ 한사랑모임봉사단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정기적 활동 외에도 40여명의 회원들은 많은 시민이 찾는 삼락공원에서 대형포대 등 재활용봉투 수십개에 달하는 쓰레기와 담배꽂이를 수거했다.



◀ 부산항을사랑하는모임2기

어린이 날이었던 지난달 5일 영도구 소재 장애인시설인 천성재활원을 방문하여 어린이 및 어른용 양말 300켤레와 모자 등의 생필품과 후원금 10만원을 지원하였다.



◀ 부산교통공사호포차량사업소한울타리

부산지방보훈청과 연계해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유공자 2세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집안청소 및 시설물 설치 등의 봉사와 함께 매월 10만원의 성금을 지원하고 있다.



◀ APEC기념재단

지난달 7일 부산여성센터에서 부산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제3기 세계시민대학을 개강하여 오는 6월 25일까지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